

최형우, 그냥 거포 아니다 KIA 중심 지키는 ‘42세 베테랑’

타자 줄부상에도 자리 지킨 ‘거포’
지명타자부터 외야 수비까지
399홈런 등 ‘해결사’ 역할도
“이게 인생 아니겠냐” 책임 의식



시즌 개막 이후 올해 들어서만 5명이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지만 KIA 타이거즈의 최고령인 최형우는 꿋꿋하게 중심을 지켜주고 있다.

아들같은 후배가 부상을 겪자 지명타자 자리를 내주고 외야 수비를 나가는 술선수범을 보이는 동시에 KBO 역대 4번째 400홈런 기록을 1개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지명타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최고령 안타’, ‘최고령 야수 출장’, ‘최고령 타점’ 등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최형우가 올시즌에도 KIA의 해결사이자 아버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범호 KIA 감독은 2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LG와의 시즌 3차전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전날 경기 도중 통증을 호소하고 교체됐던 나성범에게 근육 손상이 발견돼 최소 2주간 재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도영이 부상에서 돌아와 1군으로 콜업된 지 이틀 만이다.

이처럼 KIA에 부상 악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개막전 첫 경기에서 김도영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고 박찬호가 무릎 부상을, 김선빈 마저 허벅지 근육 손상으로 자리를 비웠었다. 심지어 불펜 필승조 좌완 투수 광도규가 왼쪽 팔목 굴곡근 부상으로 내측측부인대 재건술(토미 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시즌 아웃됐다.

이렇게 팀의 이탈자가 많아지면서 팀의 순위도 곤두박질 쳤고 팀 내 분위기가 뒤숭숭 할 때 최형우가 먼저 팀을 위해 헌신하고 나섰다. 지난 26일과 27일 LG전에서 자신보다 스무살 어린 선수인 김도영이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지명타자 자리를 내주고 낮 경기에 외야 수

비에 나가면서도 전혀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팀 내 최고령인데도 타석에도 가장 많이 나서고 있다. 29일 오전 기준 최형우(108타석)는 나성범(110타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타석에 들어섰다. 나성범이 당분간 부상으로 이탈함에 따라 이날 오후 경기에서 바로 따라잡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시즌에도 116경기 487타석을 기록하며 팀 내 다섯 번째로 많은 타석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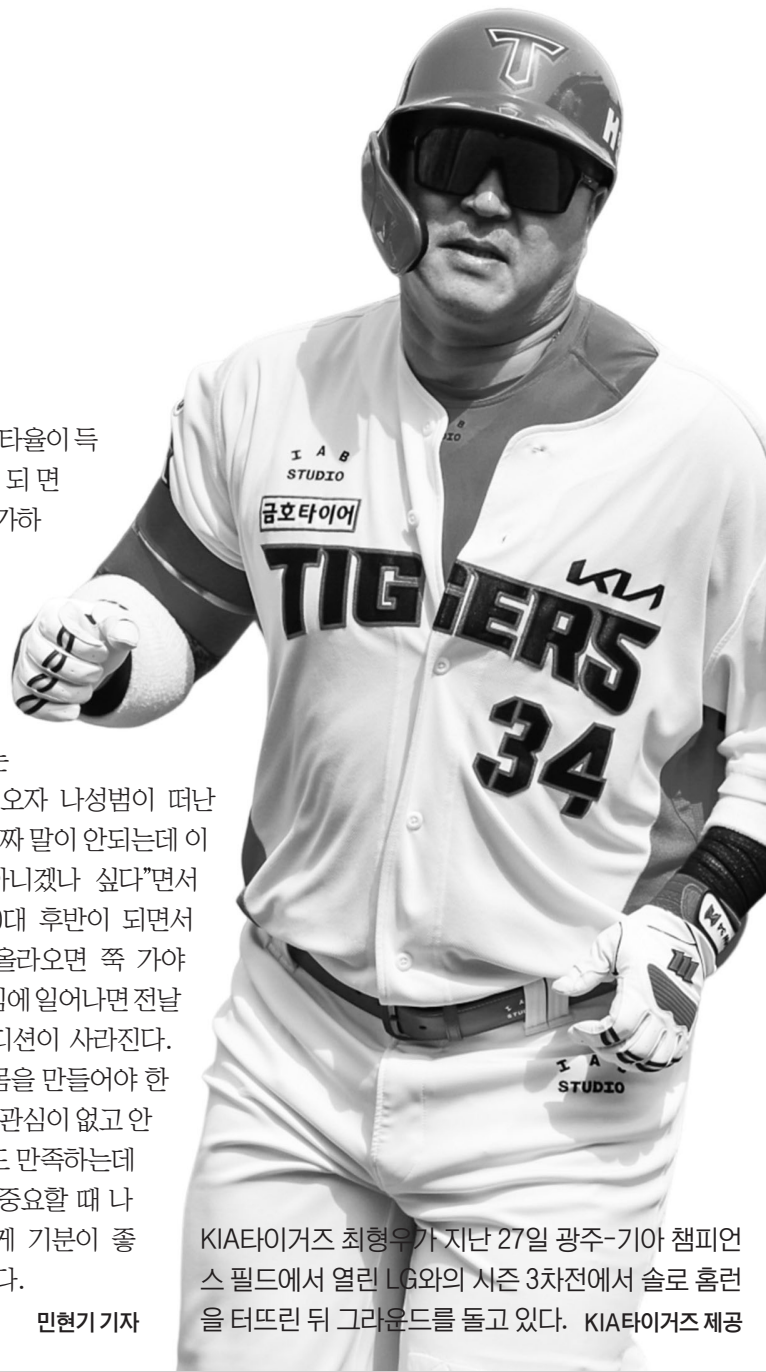
단순히 타석에 많이 서는 게 아니라 해결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최형우는 지난 27일 LG전에서 3타수 1안타 1홈런 2타점으로 승리의 중요한 키플레이어 역할을 했다. 또 개인 통산 399호 홈런을 터뜨리며 KBO 역대 2번째 400홈런을 1개만 남겨두기도 했다.

시즌 들어서는 108타석에서 27안타 4홈런 14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타율이 0.281인 최형우는 득점권에 주자가 있으면 타율이 1할 늘어난 0.292를 해내고 있다. 지난 시즌도 주자가 없는 상황

0.239였던 타율이 득점권만 되면 0.331로 증가하며 ‘해결사’ 역할을 해내며 팀 우승에 기여했다.

최형우는 “김도영이 오자 나성범이 떠난다. 진짜 진짜 말이 안되는데 이게 인생 아니겠냐 싶다”면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면서 타격감이 올라오면 쪽 가야 하는데 야침에 일어나면 전날 좋았던 컨디션이 사라진다. 처음부터 몸을 만들어야 한다. 홈런은 관심이 없고 안타 하나에도 만족하는데 그 안타가 중요할 때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민원기 기자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지난 2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LG와의 시즌 3차전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지난 27일 충북 제천실내체육관에서 끝난 제54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 1개, 은 1개, 동 2개를 수확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펜싱팀 제공

광주 서구청 최은숙, 女 에페 ‘금빛 찰르기’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
서구청 이정함 男에페 은메달 획득

광주광역시 서구청 최은숙이 제53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빛 찰르기에 성공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최은숙은 지난 27일 충북 제천실내체육관에서 끝난 이번 대회 여일부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부산시청 박진주를 15-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은숙은 결승서 박진주를 상대로 노련한 경기 운영을 펼치며 5점 차로 물리치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최은숙은 지난해 53회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광주 서구청 남자펜싱팀 이정함은 남일부 에페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정함은 결승에서 해남군청 황태현을 만나 박빙의 승부를 펼쳤으나 11-12, 1점 차로 석패했다.

최은숙·강영미·정지윤·김수빈이 호흡을 맞춘 서구청 여자펜싱팀은 여일부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서구청 여자펜싱팀은 8강전에서 강원도청을 37-30으로 물리쳤으나 준결승에서 충북도청에 41-45로 졌다.

이정함·이승현·김재원·김대연이 출전한 서구청 남자펜싱팀도 남일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광주 서구청 펜싱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도시공사 서아루, 24~25 핸드볼 H리그 베스트7

광주도시공사 서아루(사진)가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베스트7에 뽑혔다.

서아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개인상 시상식에서 베스트7 레프트윙 부문을 수상했다.



서아루는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895분간 뛰며 94골 8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신인상은 정지인(대구시청)이 수상했다. 정지인은 21경기에 출전해 109득점 48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최동환 기자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오늘 장성서 개막

22개 시·군 1만5000여명 참가
대회 최초 야외 개회식 주목



전남 장애인체육인의 화합의 대축제인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30일 장성군에서 개막해 5월2일까지 3일간 뜨거운 열전을 펼친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벽을 넘어 다함께, 하나되어 힘차게!’라는 구호 아래 22개 시군과 21개 경기단체에서 1만5000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장성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장애인체전으로, 장성군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발족, 자원봉사자 운영과 안전 대책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대회 기간 21개 종목에 열린 경쟁이 펼쳐지며, 전남 장애인들의 진정한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역사상 최초로 야외 개회식이 진행된다. 30일 오후 3시30분 장성군 옐로우시티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화합의 바람’을 주제로 장성국악협회 농악 공연과 상무대 군악단의 연주로 시작해 22개 시·군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개회사, 축사, 선수·심판 대표 선서, 성화 점화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박서진, 곽영광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대회기간 동안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앞에서 선수단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장애인 뉴스포츠(보치아, 한궁) 체험부스, 스포츠재활체험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체전네트(AI 포토부스)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고 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해 박서진, 곽영광, 성민지 등 유명가수 초청 축하무대도 마련된다.

폐회식은 5월 2일 오후 1시 홍길동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종합시상을 비롯한 최우수선수단상, 모범선수단상, 성취상 등을 수여하고 차기 대회 개최지인 구례군에 대회가 전달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도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만다비 체육센터 확대 등 정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도내 한전, 포스코, 쿠광 등 기업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장성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남 장애인체육 발전과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남부대 복싱부, 전국 종별 선수권서 금·동메달 쾌거

김경빈 여자 57kg급 금
이혜주 여자 51kg급 동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 복싱부가 2025년 전국 복싱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경빈은 지난 24~28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부 57kg급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경빈은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이현승 감독님과 최승식 부장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혜주는 여자부 51kg에서 값진 동메



2025년 전국 복싱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수확한 남부대 복싱선수단. 왼쪽부터 이혜주, 김경빈 선수, 이현승 감독. 남부대 제공

달을 목에 걸었다.

이혜주는 “항상 믿고 응원해주신 감독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현승 감독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